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2008년도 표어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10:10)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이모스서 강해

## 여러 가지 환상들 (아모스 7:1-14)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영적으로 건강한지, 복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있는지,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패한 신앙, 부패한 정치, 부패한 사회가 받아야 할 대가는 멸망 밖에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심판의 때가 무르익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수할 시기가 된 것처럼 여름철의 실과 한 광주리를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 1. 이스라엘의 끝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2절).

여름 과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주리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심판의 날이 지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박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여름 과일은 ‘케이스’라고 읽으며 끝이 가까웠다는 말은 ‘케스’라고 읽습니다.

아모스는 지금 여름 과일, 곧 ‘케이스’를 보고 있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끝이 오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마사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공평과 공의를 호소하셨지만 그들은 공의를 행하기보다는 가난한 자를 학대했고, 저울추를 속이는 등 시장에서의 상행위가 공평하지 못했으며 법정에서는 공의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힘없는 사람에게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밭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하여 거저 저울로 속이며”(5절).

이들은 안식일에는 장사하지 않았고 율법을 잘 지키며 스스로 법을 준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저울을 속여서 공평한 자를 삼키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여 망하게 했습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밭을 팔자 하는도다”(6절).

맨발로 사막을 다니는 것은 여간한 고통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들은 가난한 자에게 고작 신 한 켤레를 주고는 대신 몇 십 배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척하면서 남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선이며 죄입니다.

이스라엘의 사회 정의는 모두 상실되었습니다. 저울추를 속이고 법정에서는 법이 공의롭게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 2. 죽음의 심판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립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11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세 가지로 죽음과 멸망과 온 땅에 고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절기가 더 이상 즐거운 날이 아니라 애곡하는 날로 변하고, 주님의 날 곧 여호와와의 날에는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갈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생명수를 마시지 못한다면 이것은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래도 날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면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기갈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12절).

북한에는 성경이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방송하는 라디오를 듣고 성경을 베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길이 없고 배울 길이 없습니다. 말씀의 기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책이 바로 옆에 있어도 먹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앞에 놓고도 기갈을 당하고 기근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지, 복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있는지,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듣는 것은 좋아하는데 읽는 것은 싫어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귀로도 먹고, 눈으로도 먹어야 합니다.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13절).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예고입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립이 아니며 물이 없어 주립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11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까지 400여 년 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말씀이 끊어지고 목사가 없는 백성에게는 어두움과 혼돈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말씀이 있고, 우리 생활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만민에게 전도 - 단기선교팀 중간보고

# 인도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나마스떼!

열아홉명의 인도 단기선교단은 현재 주선교회 뽀네 인근 아우랑가바드로 이동하여 2박3일간의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위가 물러가, 단원들 모두 더욱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8월 5일 오후 1시 10분 뭄바이 공항에 도착한 단기선교단은 뽀네에 있는 UBS 게스트하우스를 본부로 하고, 이 곳에서 교수로 사역하시는 조범연 선교사님과 신학생들의 기도회, 예배, 수업에 참여 하였습니다. 특히 300여명 전 신학생의 채플시간에 참석하여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우상의 나라 인도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인도를 이끌고 갈 영적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아, 인도의 복음화를 위해 열정과 믿음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동시에 엄청난 도전으로 우리 앞에 다가온 이들의 모습은 이 곳에서 도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이며 은혜입니다.

약 20년간 인도현지에서 선교하시는 동역자 선교사님의 놀라운 간증과 St. Michel Girls 고아원의 180여명의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도



로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인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지 깨닫고 인도의 미래를 보게하였습니다. 오늘 아우랑가바드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St. Philips church의 135주년 창립예배에 참석하여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기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수길 목사님의 강력한 설교말씀과 젊은이들의 위신을 통해 인도사람들과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8월 8일부터는 이 곳 아우랑가바드에서의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됩니다. 500여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배우는 시간, 의료선교 및 미용선교, 온 주민이 함께 모이는 저녁집회 등 저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도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19명의 단기선교단 모두가 끝까지 건강하며 성령충만하여 남은 일정을 기쁨 가운데 감당하도록, 조범연 선교사님의 가정과

UBS 신학생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 곳에서 저희가 받은 은혜가 서울교회 온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단기선교팀 일동  
(인도현지 통신사정으로 사진 미계제)

# 하반기 장학금 수여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우리교회 장학위원회(위원장 윤찬오 장로)는 2008년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하고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이번에 선발된 학생들은 총 48명으로 본인의 믿음이 신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교회에 봉사하는 모범적인 학생들을 선발하였으며 총 5,464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2008년 하반기 장학생들은 반드시 찬양예배에 참석하여 장학금을 받도록 한다.

장학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대학생> -10명-

이민을 김미래 오경미 김은비 김필구 이인영 송헌영 박한샘 손헌호 Bhandari Binayak

### <브리식길라 장학생>-신학생 3명-

김종일 최요섭 노재균

### <고등부>-3명-

심송 성기방 최고은

### <선교사/교역자 자녀>-6명-

이건우 이관우 김영수 서민애 임진호 임지선

### <송암장학생>-찬양대 반주자/솔리스트 20명-

김영미 신유경 정동호 박해진 주현민 진현구 배영광 이범주 김남욱 김성현 김종표 강윤희 이현규 최예은 박승기 김현수 이실비아 구슬희 이영희 박해인

### <디아스포라부>-6명-

김철훈 박은아 김영복 박복실(박연실) 한정남 채정석 총 48명

# 무지개 어린이 합창단 창단연주 및 결단식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서울교회 부설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산하 무지개 어린이 합창단(단장 오정수 장로) 창단 연주 및 결단식이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있다.

오늘 행사에는 자문위원인 나영수 현 국립합창단 지휘자와 김명엽 현 울산 시립합창단 지휘자(전 국립합창단 지휘자) 두 분이 오셔서 창단을 축하할 예정이다.

오늘 찬양곡은 본지 4면을 참조하기 바란다.

대학부 특별기도회

#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김필구 (대학부 회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렘 33:3) 이 말씀을 붙잡고 대학부는 오는 8월 14일(목) 저녁부터 15일(금) 새벽에 배 전까지 교회 701호에서 철야기도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7월 여름수련회를 통하여 대학부 한명 한명에게 당신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새벽 2시까지 기도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련회장을 내려온 후에도 찬양과 말씀,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모임에 대한 뜨거운 사모함이 저마다의 가슴 속에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대학부의 이러한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다가오는 공휴일(15일 광복절)을 이용하여 밤이 맞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부르짖기로 작정한 이 모임은, 한 시간 가량의 찬양으로 시작되어 대학부 황광 목사님의 말씀으로 영이 새롭게 되는 시간이 있을 것이며, 이어지는 기도회 시간에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 국가,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쉽없이 기도하려 합니다.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도고하는 시간 또한 빠지지 않습니다. 매년 한 번씩 가졌던 미니수련회와는 달리 이번에는 친교를 위한 게임이나 조별활동 시간은 가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도 기도하겠습니다. 14일 밤부터 15일 새벽에 걸쳐 701호에서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하심 가운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 엘리야와 같은 간절함으로 대학부가 함께 모여 기도하겠습니다. 대학부가 아닌 성도님들도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이 모임을 위해 힘써 기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빈약한 자 구제 - 아가페 타운을 꿈꾸며

# 천사들의 인도함을 따라

제63차 세계신약학회(SNTS) 년차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 출국하여 파리를 경유하여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7시 50분, 그날 밤 기차로 바다를 건너 스웨덴 룬드에 도착한 것은 밤 11시가 훨씬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이 긴 여정 동안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은 때를 따라 천사들을 보내 주시어 인도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8월 1일(토)에는 스톡홀름 임마누엘 교회가 지난 4월에 신축 개관한 양로원을 방문, 시설을 견학하고 또 Solentina Commune이 운영하는 시립 양로원과 병원을 돌아보는 등의 강행군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1100명의 직원들이 하나같이 기쁨으로 섬기고 책임 있고 친절 한 행동 하나하나에 큰 감명과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세계적인 신약학자 300여명이 모인 학회에서는 오랜만에 만난 옛친구들과 동료들을 만나는 기쁨도 컸지만 오늘의 신약 연구의 동향을 짐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참으로 의미가 깊었습니다. 이 학회 회원이 우리나라에는 두 사람밖에 없는데 다른 한 분은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분으로 신약 학회의 회원된 것을 크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학회에 관한 보고는 추후 시간 나는대로 성도님들께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독교 신앙으로 출발한 기관들이 인본주의적 사회 봉사기관으로 전락한 것을 보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약 학회 참석 외 이번 여행의 또 하나의 목적은 아가페타운 건립을 위한 벤치 마킹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학회를 끝낸 저는 오정수 장로 일행을 만나기 위해 코펜하겐으로 갔습니다.

7월 31일(금), 우리 일행은 코펜하겐 외곽에 위치한 Holmegaardsparken 양로원을 찾았습니다. 덴마크에서 가장 오랜 역사(149년)를 가진 이 양로원은 개개인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관리하면서 직원과 봉사자들에 대해서는 놀랄정도로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경영 세칙과 방법을 두 시간 이상 들으며 그들이 먹는 식사를 하고, 6개 동의 시설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활동 상황을 견학 하며 질의 응



우 이상적이었습니다. 섬기는 종인 천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세우는 마음으로 이 디아코니가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1854년 빌헤름 뮐러 목사에 의해 설립된 후 이 디아코니는 노인복지는 물론 약 2천여명의 유아, 청소년, 성인 정신지체자들을 위한 방대한 시설과 거주지, 작업장, 교육시설, 클리닉이 있으

8월 3일(주일)에는 스톡홀름의 임마누엘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서울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음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8월 4일(월)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호산나 학교 이동기 원장 일행이 합류하여 독일교회가 운영하는 디아코니에 여정을 풀었습니다. 이 마을은 전체가 복지시설로 가득 차 있었고 마을 한 복판에 있는 교회의 첨탑에 천사가 붙잡고 있는 십자가가 달려있는 것이 때



며 우리는 온종일 다리가 아플 정도로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견학하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어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8월 5일(화) 저녁에는 디아코니스텐텐에 도착하였습니다. 독일 남부 슈투트가르트 지역 인근에 있는 이 디아코니는 4500여명의 장애인을 위해 1674명의 직원과 257명의 성직자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주거시설, 직업교육, 작업장, 재활센터, 특수학교 등 모든 공동체가 자치 조직을 결성하고 자치위원을 선출하여 운영하며 장애인 작업장에서는 벤츠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기도 하고 도자기를 구워 판매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여행에서 보고 배운 것 중에 좋은 점뿐만 아니라 실패하고 잘못된 것도 볼 수 있어 더욱 큰 소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7일 오전까지 강행군을 계속하면서 디아코니(섬김)가 무엇인지를 다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나 북유럽의 시설들을 돌아보면서 초심이 변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출발한 기관들이 인본주의적 사회 봉사기관으로 전락한 것을 보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 타운의 청사진을 그리면서 현재로서는 우리의 규모가 이틀만큼 크지 않아도 질적으로는 이에 못지 않아야겠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인도하셨으며 이는 여러분의 기도의 은덕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제 마음은 먼 미래를 꿈꾸며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보고서를 대신하여 이 글을 씁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일행을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과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해주신 오 장로님, 하 장로님 일행과 호산나학교 관계자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서울행 비행기에서  
- 이종윤 목사 드림 -

여름수련회 초대 - 청년 1,2부 · 신혼가정부

# 말씀 앞에 머무는 삶

김광룡 집사  
(청년1부 부장)

여름수련회는 어떤 주제로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지도목사님과 교사, 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며 토의하고 기도하며 계획하던 것이 벌써 몇 달째.



특pecially 이번 수련회는 그간 우리의 꿈이던 아카데미타운에서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린다.

금년부터는 연령 차이에서 오는 생각의 차이와 선후배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동질감 속에 결집력을 높이고자 30세를 전 후로 선배들이 청년1부, 후배들이 청년2부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수련회는 8월14일(목)~8월16일(토)까지 2박3일 동안 아카데미타운에서 청년 1, 2부가 같은 날짜에 여름수련회를 갖기로 하였다.

청년1부가 정수길 목사님의 지도로 "말씀 앞에 머무는 삶", 청년2부는 이태훈 목사님의 지도로 "하나

님사랑 이웃사랑"으로 주제를 정하고 이종윤위임 목사님의 특강과 집회시간외에는 각자의 프로그램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며 상호 보완관계를 이루는 단합하는 수련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집회는

함께하고 그의 프로그램은 각부별로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 특강과 레크리에이션, 조별 모임, 심신을 단련하는 물놀이, 그리고 프로그램 중간에 여름을 이기는 특식과 간식이 준비되고 있다. 찬양과 기도는 청년들을 하나로 연합하는 계기가 되어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름수련회가 될 것이다.

잔치가 준비 되고 문은 활짝 열렸다. 예수님의 혼인 잔치에 초대된 청년들이여!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부들같이 2008 여름수련회에 한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축복받고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삶의 지혜를 배우는 청년들이 되길 바란다.

## Holy Home Set

홍일성 집사(신혼가정부 부장)

8월15일(금)~16일(토)아카데미타운에서 이틀 동안 'Holy Home Set'을 주제로 신혼가정부 여름수련회가 열립니다.

두 사람의 사랑으로 부부가 되어 살아가면서 행복으로만 일관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성격, 습관 심지어 잠자는 시간까지도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배려해야겠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워야 할 신혼의 때에 사소하고 작은 것으로 다툼이 있어 때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결혼식 날 서약했던 사랑이 영원할까요?  
한편 사랑의 결실로 태어날 아기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할건가요? 신혼가정 여러분들은 부모로써 준비가 잘 되었나요?

그 해법을 이번 여름수련회에 오시어 찾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빠져보세요. 나눈 시간 동안 진솔한 대화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랑충만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다른 신혼가정의 모습을 통해 생활의 지혜도 배우고 주님 안에서 형제의 사랑도 나눠보세요.

신혼가정 여러분. 잠시 세상 일은 접어두시고 여름수련회에 오시어 성경에 기초한 신실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여 은혜 충만한 시간되기를 소원합니다.

### 특별찬양

오늘저녁 특별찬양은 무지개어린이 합창단의 천사같은 목소리로 준비된다. 엄중함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지난 수 개월간 발성학적인 기초 훈련과 합창의 기본을 배워왔다.

이들은 앞으로 더 큰 음악적 발전과 함께 신앙성장도 기대되는 우리교회 찬양의 초석이 될 인재들이다. 오늘은 자비로우신 예수님 (Webber) 외에 4 곡으로 찬양드리며 지휘에는 현 고양시립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이며 전국소년소녀합창연합회 회장인 강영모 선생이, 피아노 반주에 김현주 선생(연세대 강사), 오르간에는 우리교회 가브리엘 찬양대의 박준호 선생이 각각 수고한다.

### 새가족 환영회

8월16일(토) 오후 5시, 801호에서 금년 4월19일 이후 등록한 새가족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는다.

### 등정

- 이종윤 목사는 12일(화) 칼빈탄생 500주년 기념사업회 임원회를 소집한다. 14일(목) 한국로잔위원회 임원회를 소집한다.
- 이영조 집사(음악감독)는 「국립예술재교육원」 초대원장에 임명되었다. 국립예술재교육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예술재교육기관으로 음악, 미술, 무용, 국악 4개 분야 초등학교 4학년부부터 중1까지의 예술영재 100 명을 전액 국비지원으로 교육시킨다.
- 개업 : 박상훈 집사 (3교구) 「법무법인 한별」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1 풍림빌딩 7층 Tel 566-2800
- 특남 : 4교구 김극영 성도 정현실 성도 가정
- 교역자 휴가 : 노현상목사 8월 11일-14일 대행 : 이규정 목사 임규현목사 8월 11일 - 16일 대행 : 서명철목사 박광일전도사 8월 11일 - 16일 대행 : 한상은 목사
- 주간식당봉사 : 한나전도회(8.10) 당회원 (8.17)
- 금주의 식사 : 교회제공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아카데미타운 건립 위해 헌금을 바친 이, 걱정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2. 아카데미타운 건립이 방해꾼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3. 무더위와 장마철에 온 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위하여
4. 올해 안에 한 가정 이상 전도하게 하소서.
5. 정국이 안정되고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 교회오시는 길

